

사서교사의 “재량활동 수업”

임성관*

학교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교과와 연계된 수업을 통한 적정 자료의 제공과, 학생들 스스로 여러 자료를 활용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의 구성이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이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라 하더라도 아직 그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며, 자료의 구성에 있어서도 원활한 과제 수행을 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필자가 근무했던 학교의 경우처럼 경기도 좋은 학교도서관만들기협의회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교실 한 두 칸 정도 크기의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서교사의 근무형태도 비정규직인 곳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교과연계수업을 실행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기대수준은 점차 올라가고 있으며, 그에 발맞춰 사서교사의 자질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고 있어, 학교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야 함은 물론이고, 점차적으로 학교도서관의 가장 큰 기능인 교과연계 방안도 실시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사서교사가 정식교원이 아닌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 각 교과 담당선생님들과의 협의도 사전에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생님들의 갑작스런 전근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면도 고려를 할 때, 원활한 교과연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놓여진 걸림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사서교사 개인의 노력이나 간절한 바람만으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을 인정하고

* 사서, 밝은세상LTC(주), 전 교천초등학교 사서교사, harin75@orgio.net

처해진 상황 안에서 최선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앞으로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고천초등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할 당시 '재량활동'이라는 수업시간을 활용해 보다 완전한 형태의 교과연계수업을 행해나가기 앞선 단계의, 사서교사가 주체가 되는 수업을 실시했는데, 지금부터 재량활동 수업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재량활동 수업은 말 그대로 교사의 재량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교사의 자질에 따라서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하는 《교육마당 21》의 2002년 9월호에는 '창의적 재량활동 우수사례'라는 특별기획 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들꽃 학습을 통한 자연친화 교육' (박찬용),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생각 키우기' (김명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통한 사이버 예절 교육' (문희철), '자기발견 성장록 작성을 통한 자아개념 정립 지도' (정규창)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고천초등학교에서도 2002년 6월부터 각 학년 반별로 매월 1회씩 사서교사가 직접 교실로 찾아가는 재량활동 수업을 시행했는데, 이는 도서 등의 매체에 있어서는 교사보다 훨씬 전문성을 띤 전문가로 하여금 도서 선택 등의 내용을 통해 교과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특성 있는 재량활동을 운영하게 한,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재량활동 수업에 대한 안이 확정되면서 사서교사 1인에 의한 수업이 아닌 다각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 운영의 한 구성원인 학부

모 명에서사서교사들과의 회의를 가짐으로써, 수업 계획 작성에 대한 도움과 재량활동 수업 시 참여도 유도해 낼 수 있었는데,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학년별, 월별 수업안 및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이렇듯 총 26학급의 26시간으로 구성된 재량활동 수업시간에는 단순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자료를 찾는 방법 등의 도서관 이용교육과는 달리, 각 월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거나 다양한 분야로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차별화 된 구성을 하고자 했는데, 1·2학년의 경우는 그림책을 기본으로 한 간단한 독후 활동 위주로, 3·4학년은 그림책과 저학년 동화를 기본으로 한 독후 활동, 5·6학년의 경우는 특별한 선정도서가 없더라도 모둠 토론 자료를 구성해, 토론을 통한 생각 나누기와 글 쓰기를 주 내용으로 했다. 다음에 보여지는 자료는 학년별 월별 수업안 가운데 6월의 내용이다(〈표 1〉 참조).

〈표 1〉

학년	6월
1·2학년	주제 : 우리 가족 (아빠) 선정도서 :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독후활동 : 아빠에게 편지(엽서) 쓰기
3·4학년	주제 : 전쟁 선정도서 : 왜?, 전쟁 나는 평화를 꿈꿔요 독후활동 : 전쟁의 피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전쟁을 축소시켜 다툼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 후 사과하는 법에 대해 배우기
5·6학년	주제 : 모둠별 토의 선정자료 : 누구를 태울 것인가 독후활동 : 세계대전의 발발로 모두가 죽고 단 10명만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단 7명만 탈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면 생존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위와 같이 월별 수업안이 나오게 되면 사서교사는 월별 수업시간 조정을 위해 각 학년 반 담임선생님께 수업 협조에 관한 회람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 회람은 각 학년별 교사들이 적정 요일 및 시간을 결정해 주는 과정으로, 담임교사의 수업진도 및 다른 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볼 기회를 주는 의미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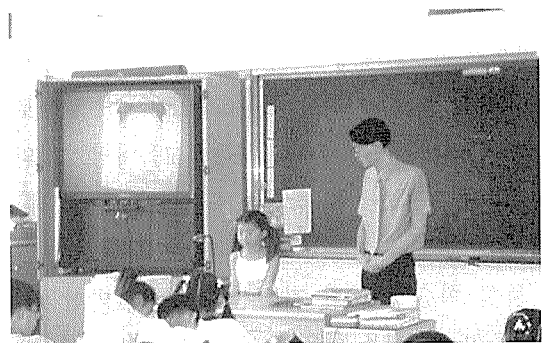
이런 과정을 거쳐 교사들이 회람한 결과가 도서실로 돌아오면 사서교사는 정해진 수업요일 및 시간에 관해 학부모 도우미들과 다시 한 번 회의를 갖고, 사서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는 시간 동안의 도서실 봉사, 수업 보조 교사를 정한다. 초등학교의 학급은 거의 모듈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 한 모듈에 한 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되면 가장 좋겠지만, 2명 정도의 보조교사만으로도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사진 1, 2〉 참조).



〈사진 1〉 그림책 소개

현대는 정보화 사회로서 교육을 통하여 지식이나 정보를 단순히 습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려는 의욕과 능력을 신장시키는 모습을 모색해야만 한다. 교육 현장에서도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고 활용하여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학교도서관과의 역할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 이에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는 독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도서관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연결을 꾀해야 하겠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서교사, 각 교과에 맞는 자료 및 도서관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시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겠다.



〈사진 2〉 아빠에게 쓴 편지 발표하기

이렇듯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사서교사나 교사는 긴밀한 협력을 통한 교과연계수업이나 재량활동 등의 수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